



1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7 BMW IBSF 봅슬레이 & 스킨슬레톤 월드컵' 남자 4인승 봅슬레이 경기에서 원윤종-김진수-이경민-오제한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 썰매장 ‘마의 코스’ 9번 커브를 넘어라

IBSF 월드컵 8차대회

윤성빈 0.01초차 은메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약 11개월 앞두고 열린 평창 봅슬레이·스켈레톤 월드컵에는 올림픽 경기장 트랙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들이 총출동했다.

선수들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2일부터 2주일간 훈련한 뒤 17~19일 2016~2017시즌 국제봅슬레이

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제8차 대회를 치렀다.

최근에 완공된 이 경기장에서 처음이자, 올림픽 개막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제 대회를 치른 선수들이 어렵다고 꼽는 코스는 정해져 있었다.

루지 종목에 이어 스킨슬레톤 선수들은 단연 9번 구간을 ‘마의 코스’로 꼽았다.

연습 때 가장 많은 코치진이 공략법을 찾기 위해 몰린 곳으로, 대회 때도 다수 선수가 9번 코스를 지난 뒤 벽에 부딪히는 장면을 연출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9번 커브를 빠져나오면 직선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세하게 좌우로 휘어져 있는 10~12번 코스가 나온다. 이 코스를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 9번 코너에서 속도를 줄이면 기록이 늦어지고,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남자 스킨슬레톤 우승자 마르티스 두쿠르스(라트비아)는 “9번 코스에 거의 모든 게 달려있다. 9번만 잘 미끄러져 나가면 좋은 경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0.01초 차로 은메달에 만족한 윤성빈

(강원도청)은 “기존 커브들과 달리 9번은 길이가 길지도 짧지도 않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커브다 보니 꺼리는 것 같다”고 평했다.

봅슬레이에서는 9번뿐 아니라 2번도 난코스라 꼽았다.

‘봅슬레이 최강자’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독일)는 “2번, 9~12번, 15번이 어렵다. 2번은 처음 들어가는 부분이 넓어 주의해야 한다. 조작을 조금만 잘못하면 벽에 부딪힌다. 출발할 때 좋았던 속도가 줄어 들 수 있다”고 평했다.

/연합뉴스

원윤종(강원도청)도 “2번과 9번에 초점을 맞추고, 까다로운 커브 몇 개를 공략해야 한다”며 “봅슬레이는 9번 코스에서 직선으로 잘 빠져나가는 것 뿐 아니라 속도가 붙는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쿠르스는 “트랙이 흥미로웠다. 많이 어렵다거나 위험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실수하면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다”고 평했고, 프리드리히는 “전반적으로 좋고 매일 나아지고 있다. 올림픽 때 좋은 트랙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아기 호랑이’ 실책하며 크다

KIA-SK와 시범경기 4-7 패

타격·어깨 좋은 최원준

실책 3개 범하며 수비 약점

‘한숨’으로 키우는 ‘아기 호랑이’다.

KIA 타이거즈가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4-7패를 기록했다.

이날 KIA의 기록지에는 3개의 실책이 기록됐다. 모두 3루수 겸 7번 타자로 선발 출전한 최원준이 저지른 것이다.

2회 최원준이 SK 선두타자 한동민의 공을 놓치면서 실책이 시작됐다. 팻 단이 삼자범퇴로 위기를 넘겼지만 5회 기록된 실책은 실점으로 연결됐다.

1사 1루에서 이대수의 타구가 크게 바운드 되어 3루수 최원준 앞으로 향했다. 대시를 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공을 잡은 최원준은 급히 1루에 공을 던졌지만 악송구가 됐다. 1루수 김주형이 간신히 공을 잡았지만 태그에는 실패하면서 1사 1·2루. 그리고 상대의 더블스틸에 이어 이병기의 땅볼 때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2-1이 됐다.

6회에도 최원준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심동섭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베테랑 김광수가 선두타자 최정과의 승부에서 5구 승부 끝에 3루수 땅볼을 유도했다. 날카로운 타구였지만 최원준이 잘 잡아내면서 앞선 실수를 만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한 송구가 바닥을 친 뒤 1루수 김주형이 손쓸 틈도 없이 뒤로 흘러갔다.

공을 던진 최원준도 이 장면을 보던 이들도 절로 한숨이 나오는 실책 퍼레이드였다.

실책으로 시작된 6회 결국 KIA는 2-3 역전을 허용했다. 8회에는 7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한 2년차 투수 정동현이 난타를 당하면서 점수는 2-7까지 벌어졌다.

매서운 방망이 실력에 비해 최원준의 수비는 약점으로 꼽힌다. 김기태 감독은 ‘뒤편 부른 띄임’ 최원준을 키우기 위해 공을 띄이고 있다. 지난 시즌 퓨처스 리그에서 내·외야를 오가면서 많은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했다. 채찍도 들었다. 스프링 캠프 연습경기에서 최원준의 수비 실수가 이어지자 대만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강한 어깨를 가지고 있지만 외야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김 감독은 내심 최원준이 내야 자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 감독은 19일 경기에 앞서 최원준의

수비 이야기가 나오자 “나도 수비 못했”고 웃으면서 아직 경험이 적은 2년 차 선수라고 믿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쉽지 않은 선수 육성 과정이다.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9회 ‘아기 호랑이’들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중견수로 자리를 옮긴 최원준이 한동민의 큼직한 타구를 펜스까지 달려가 잡아 박수를 받았고, 역시 2년차 포수 신범수는 9회말 최원준의 타석에 대타로 들어가 SK 마무리 박희수를 상대로 1타점 적시타를 때려 사람들을 웃게 했다. 신범수의 시범경기 타율은 11타수 5안타, 0.455가 됐다.

시범 경기 첫 주 김 감독은 ‘격일제’ 운영을 통해서 베스트 라인업과 번갈아 가면서 어린 선수들의 타격과 수비를 점검했다.

김 감독은 “좋은 투수가 나왔을 때 좋은 경기를 했고, 아닐 때는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음주부터는) 실천처럼 사인도 넣고 할 것이다. 이제 3월31일 개막에 맞춰서 투수들은 연두로 하고, 이기고 있는 상황 지는 상황에 따라 경기도 풀어야 할 것이다. 야수들도 이를 연습 뛰면서 준비를 하도록”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개막 D-11 ‘부상과의 전쟁’

신종길·안치홍·김진우 휴식…이범호는 컴백

D-11, 이제는 부상과의 전쟁이다.

2017 프로야구 개막이 다가오면서 시범경기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27인 엔트리를 향한 경쟁 속에 부상에 대한 우려로 예민해지는 시기. 시범경기 6경기를 소화한 KIA에서도 부상 병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스프링캠프에서 좋은 페이스를 보였던 신종길은 훈련만 하고 시범경기를 치르지도 못했다. 왼 허벅지 앞 근육이 좋지 않은 신종길은 시범경기조에서 시작했지만 재활조에서 지난 한 주를 보냈다.

김진우는 선발 등판 직전 부상병이 됐다. 지난 15일 두산전 선발로 나설 예정이었던 김진우가 불행 피칭 도중 왼 윗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경기 직전 부러부러 선발이 김윤동으로 교체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병원 검진 결과 김진우는 염좌 진단을 받았다. 지난 시즌에도 계속된 부상으로 제 몫을 하지 못했던 김진우는 이번에도 마운드의 ‘불확실한 카드’로 시즌을 출발하게 됐다.

‘예비역’ 안치홍(사진)도 부상자 대



열에 합류했다.

안치홍은 지난 18일 SK와의 경기에서 도루를 하던 중 윗구리를 다쳤다. 병원 검진 결과 김진우와 마찬가지로 윗구리 염좌 진단을 받으면서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지난 16일 kt 전서 만루포를 쏘아 올리는 등 타율 0.500(10타수 5안타), 7타점 등 쾌조의 컨디션을 보였던 만큼 안치홍은 물론 팀에게도 아쉬운 부상이 됐다.

돌아올 선수가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허벅지 통증으로 아직 시범경기 스타트를 끊지 못한 이범호가 오는 2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경기를 통해 시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기 호남 초등학교

학강초 우승

학강초가 화마의 아픔을 딛고 ‘제 14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초등학교 야구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학강초는 최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수창초를 상대로 8-2로 승리를 거두며 시즌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수직했다. 학강초는 앞서 지난 1월 경주시장배와 2월 군산에서 열린 일구회 대회에서 우승했다.

훈련장 화재라는 악재 속에 이른 우승이라 더 의미가 있다. 학강초는 지난 1월 화재로 연습장이 잿더미가 되면서 ‘매뚜기 신세’가 됐다. 큰 화재 속에 다행히 다친 선수는 없었지만 연습할 곳이 마땅치 않아 중학팀 경기장 등을 전전하며 훈련을 하고 있다.

우승을 지휘한 최태영 감독은 “장소를 옮기며 훈련하느라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좋은 경기 해줘서 고맙다”며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계신다. 소년체전 예선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광주(수창초, 서림초, 대성초, 서석초, 학강초, 송정동초, 화정초) 7개팀과 전남(화순초, 순천북초, 여수서초, 순천남산초, 나주북초) 5개 팀 등 12개 팀이 참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결을 벌였다.

우승팀 학강초에 우승기와 우승 트로피, 상장, 야구용품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준우승팀 수창초와 3위 2팀(서림초, 송정동초)에게도 트로피와 상장, 야구용품이 각각 수여됐다. 참가한 모든 팀에게는 야구용품이 참가기념품으로 주어졌다.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학강초 배광물을 비롯한 각 부문별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시상내역

▲최우수 선수상 : 배광물 ▲타격상 : 정종하(0.667) ▲우수 투수상 : 이영주 ▲최다 안타상 : 정종하(8안타) ▲홈런상 : 배광물(3개) ▲최다 도루상 : 남형진(4개) ▲최다 타점상 : 배강(8타점) ▲수훈상 : 김진후(이상 학강초) ▲감투상 : 송진형 ▲미기상 : 노민준(이상 수창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차준환·임은수 덕분에…

한국, 그랑프리 최다 출전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싱글의 차준환(취문고)과 여자 싱글의 임은수(한강중)가 나란히 ‘톱5’ 달성에 성공하면서 후배들에게 ‘남녀 싱글 최다 출전권’이라는 선물을 남겼다.

차준환은 지난 1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끝난 남자 싱글에서 자신의 ISU 공인 최고점점수로 종합 5위를 차지, 한국 남자 선수로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여자 싱글에 나선 임은수도 18일 프리스케이팅 결과 총점 180.81점을 받아 자신의 ISU 공인 최고점점으로 종합 4위에 랭크됐다. 김연아가 2006년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한국 여자 선수가 달성한 가장 높은 순위였다.

한국 남녀 선수가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동반 ‘톱5’를 달성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피겨퀸’ 김연아의 은퇴 이후 한국 피겨는 쇠락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차준환과 임은수를 비롯해 김예림(도장중), 유영(파천중) 등 어린 선수들이 미래를 밝히고 있다. 특히 ‘동반 톱5’ 달성은 한국의 2017-2018 시즌 ISU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권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권은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국가별 순위로 정해진다. 국가별 순위는 대회에 나선 선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만 따진다.

한국은 남자싱글과 여자싱글 국가별 순위 3위를 기록하면서 각각 대회별로 2명씩 14명의 선수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즌 남녀 싱글에 각각 6명과 7명의 선수만 내보냈던 한국은 어린 선수들이 국제무대 경험을 더 많이 쌓을 기회를 얻었다.

/연합뉴스